

환경시설 갈등 ... 갈라진 공동체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고행연료폐기물(SRF) 발전소, 폐기물매립장,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등 이른바 '환경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마찰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인구밀집지역을 피해 도시 인접지역이나 전남도내 농촌으로 기피시설을 이전하거나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경제력이 감소하는 농촌을 대상으로 해 신재생에너지시설을 과도하게 설치한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 시설 설치에 있어서 사전 주민협의, 사전 환경영향평가 공개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기사 3면>

지난 16일 오전 11시 광주시청 앞 도로에서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주민들이 도로 한편을 차지하고 차량 시위를 벌였다. 코로나 19 사태로 차량 시위 방식을 택한 주민들은 언론에 배포한 성명에서 "광주 쓰레기(연료)를 나주에 들이지 말라"고 강조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난 2017년 혁신도시에 건립한 SRF 열병합발전소에 광주 생활폐기물로 만든 고행연료를 보내지 말라는 요구다.

광주 SRF를 혁신도시 SRF발전소에 반입하는 문제는 '2013년 난방공사의 요청에 따라 나주시가 동의했다'는 사실이 2018년 법원의 결정에 따라 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난방공사와 나주시의 합의일 뿐 주민 동의는 없었다"며 "발전지 처리 원칙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광주 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나주 SRF발전소 가동 문제는 지역 내 환경영

향성·주민 안전성 문제를 넘어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건드리면서 광주와 전남의 지역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나주 SRF발전소 가동 문제
광주·전남 지역갈등으로 번져
순천·보성 매립장 설치
최종 입지 선정 놓고 갈등
풍력·태양광 발전소 건립
여수·해남 등 곳곳이 몸살

향성·주민 안전성 문제를 넘어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건드리면서 광주와 전남의 지역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보성 벌교에서는 산지 채석장에 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하는 움직임이 최근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산에다 폐기물매립장을 짓는 경우에 어디에 있느냐, 오염 침출수가 마을로 내려와 피해를 주는 게 불 보듯 하다"며 대책위를 꾸리고 반대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순천에서는 소각장과 매립장, 재활용센터를 한데 모은 시설의 최종 입지를 정하는 문제를 놓고 지역사회가 갈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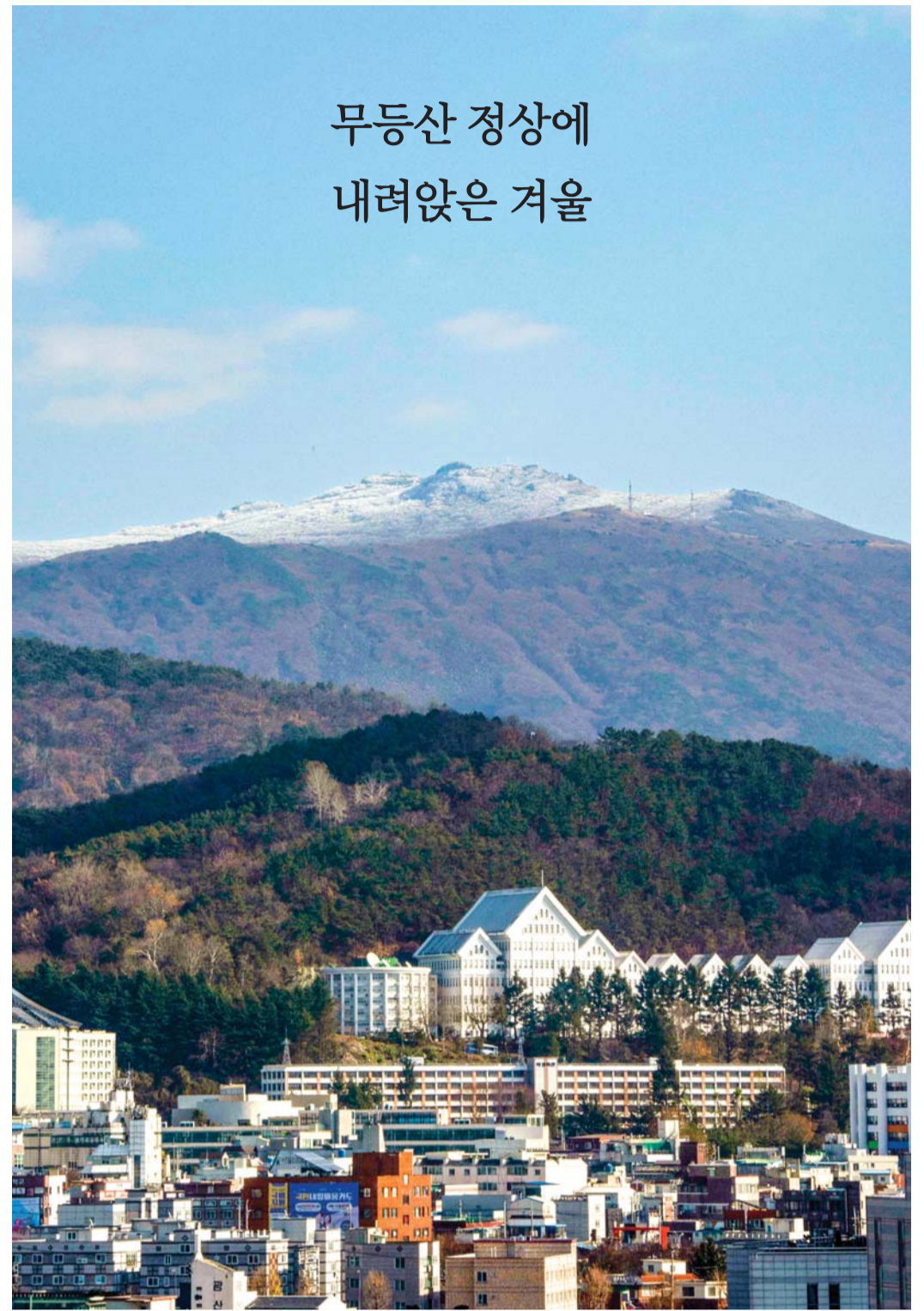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풍력·태양광 발전소 건립 추진 과정에서 전남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여수에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거문

도 해상에 8MW급 해상 풍력발전기 36기를 설치하는 내용의 풍력발전사업을 허가하자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생기는 소음과 진동 등으로 어장이 황폐화되고, 이로 인한 어민 수입 감소, 선박 충돌 사고 가능성 등 부작용을 어민에게 떠넘기다며 주민들은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해남에서는 한국남동발전 등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인 해남희망에너지(주)가 문내면 간척지에 400MW급 태양광·풍력 발전시설 구축에 나서면서 인근 농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민선 7기 전남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신안 해상 8.2GW급 풍력발전단지 건립을 둘러싸고도 극심한 어민 반발로 한때 사업 좌초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전남도와 신안군이 '일자리 나눔', '이익 공유' '어민 피해 최소화' 방침 아래 설득에 나섰고 어민들이 옹호하면서 얼어있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다.

광주·전남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민원은 최근 5년간 395건에 이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관련 민원은 광주는 3건, 전남은 392건이다. 광주는 모두 태양광 사업 관련이며, 전남은 태양광 306건, 풍력 81건, 수력·바이오매스 등 기타 5건이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무등산 정상에 내려앉은 겨울

전날 비가 내린 후 추워진 날씨 탓에 23일 오전 무등산 정상에 상고대가 피었다. 이날 광주 날씨는 최저 4도를 기록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코스피 2600고지 돌파 1.92% 올라 사상 최고치 경신

코스피가 23일 2602.59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49.09포인트(1.92%) 오른 2602.59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018년 1월 29일 기록한 종가 기준 최고치 2598.19포인트를 약 2년 10개월 만에 넘어선 것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6.54포인트(0.26%) 오른 2560.04에 출발해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오전에 2600선 고지를 밟았다. 코스닥은 전날보다 3.11포인트(0.36%) 오른 873.29에 마감했다.

한편 '대장주' 삼성전자는 이날 4% 이상 급등하며 다시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4.33%(2000원) 오른 6만7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6일 세웠던 신고가(종가 기준) 6만6300원을 가볍히 뛰어넘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도 402조9000억원까지 늘어나며,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처음 400조원도 돌파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코로나19에 광주교도소 뚫렸다

광주·전남 23일 확진자 5명

11월 들어 광주와 전남에서 폭증했던 코로나 19 확진자가 23일 단 5명 나오는 데 그쳤다. 다만 광주에서는 광주교도소 관련 확진자가 잇따르고, 전남에서는 순천 등 동부권 중심으로 적은 수이지만 확진자가 연일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절실하다. 사도 방역당국도 확진자 감소는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 곳곳에 코로나에 감염된 사실을 모르는 '숨은 코로나 환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광주 3명, 전남 2명 등 총 5명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왔다. 광주에서는 교도소 직원인 524번 확진자가 가족 2명이 진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광주 616~617번 확진자가 됐다. 또 이날 교도소 수형자 1명이 광주 618번째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22일에도 광주교도소 수형자 1명(광주

615번)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교도소 내 확산 우려도 제기됐다.

전남에서는 휴일인 22일 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이날은 오후 6시 현재, 순천에서만 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남의 코로나 19 누적 확진자는 360명으로, 지역 발생이 310명, 해외 유입이 50명이다.

전국에서는 23일 0시 기준, 27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집계했다. 지역 발생 255명, 해외유입 16명이다. 지난 22일 0시 기준(330명)과 비교해 59명 줄면서 지난 17일(230명) 이후 여섯 만에 300명 아래로 내려왔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3만1004명이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 원인 불분명 서창동 일대 침수피해 ▶6명
- 국모연 예향 - 고선용 연출가 ▶18명
- 김세영 LPGA 펠리컨 챔피언십 우승 ▶22명



국민대통합을 위한
영호남 문화대축전
11.06 - 11.30
온라인 소공연 운영 NAVER 영남권대통합추진위원회
문화주간 광주일보사 매일신문사

사랑과 감사의 66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 15개 지점서 군 공항 소음 영향도 조사

내년 상반기까지 2차례 시행
소음대책지역 월 최대 6만원 보상

광주 군 공항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현장 조사가 시작됐다.

23일 국방부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군 공항 소음 대책 지역 선정을 위한 '소음 영향도 조사'가 광주 시내 15개 지점에서 이날부터 29일까지 7일 동안 이어진다. 국방부는 소음 영향권에 든 광산·서북구에서 민원이 빈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받아 조사지점을 선정했다.

조사지점은 자치구별로 광산·서구가 6곳씩, 북구는 3곳이다. 소음 영향도는 군 항공기 이·착륙 때 측정된 소음도에 발생 횟수와 시간대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15개 지점에서 연속 7일간 24시간

동안 소음을 2회차 이상 측정한다. 2차 측정은 내년 상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소음 영향도 조사는 전문 장비와 기술 등을 보유한 용역업체가 수행한다. 지자체가 추천한 주민 대표와 민간 전문가가 참관하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점검한다. 담당 지자체도 조사 종료 전 의견을 제출한다.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라 1~3종으로 구역을 나눠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 고시한다. 각 구역은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인 웨클(WECPNL) 기준으로 95 이상 제1종, 90 이상 95 미만 제2종, 85 이상 90 미만 제3종으로 구분한다. 소음 대책 지역 지정과 고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말께 마무리할 전망이다. 지정과 고시 절차까지 끝나면 소음 대책 지역 피해 주민은 별도의 소송 없이 신청을 통해 매달 최소 3만원, 최대 6만원씩 보상을 지급받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2월

광주국악상설공연

매주 화~토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전석무료 거리두기 지정좌석제

| 인터넷예약 |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티케팅
| 전화예약 | 062)613-8379/8372
| 온라인공연 | YouTube 광주문화예술회관

주최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주관

광주문화예술회관
Gwangju Culture & Art Center

관람

만4세이상